

# 『하마마쓰추나곤모노가타리』의 출가

- ‘묘쇼곤의 인연’의 의미를 중심으로 -

辛在仁\*

---

## 目次

---

1. 서론
  2. 현실의 ‘출가’와 모노가타리의 ‘출가’
  3. ‘묘쇼곤의 인연’
  4. 아마히메키미의 출가의 상황
  5. ‘묘쇼곤의 인연’의 한계
  6. 결론
- 
- 

## 1. 서론

일본의 헤이안 시대 모노가타리에는 아마다 정토를 추구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출가(出家)를 회구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각각의 모노가타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남녀 군상들의 출가와 출가에 대한 원망(願望)은 비록 허구의 형태이기는 하나 일본 고대인들의 의식과 출가에 관한 가치관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헤이안 시대 후기의 『하마마쓰추나곤모노가타리(浜松中納言物語)』(이하 『하마마쓰』라 약칭함)<sup>1)</sup>에 등장하는 아마히메키미(尼姫君, 출가 이전에는 사다이쇼노오이키미(左大将の大君)로 불렸으나 출가하여 아마히메키미

---

\* 서울디지털대학교, 조교수, 일본학

1) 『하마마쓰』의 본문 인용은 『浜松中納言物語』(池田利生 校注·訳、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27)에 의한다.

로 불리게 되므로 이하 아마히메키미라 칭함)라고 하는 여성의 출가와 그 의미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현실의 ‘출가’와 모노가타리의 ‘출가’

헤이안 시대 모노가타리의 많은 등장 인물들은 다양한 역경의 상황에서 그 역경을 받아들이거나 타파하는 방법으로 ‘출가(出家)’를 택한다. 즉, 헤이안 시대의 여성에게 있어 ‘출가’는 세상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 세속에서 실패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는 보호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당시의 여성들에게 ‘출가’는 자신을 지탱해 주지 않는 사회를 떠나는 하나의 중대한 방법과 결단이었으며, 불사(仏寺)는 결혼과 남성이 있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sup>2)</sup>. 『겐지모노가타리』의 ‘출가’를 예로 하여 생각해 보면, 히카루 겐지나 만년의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가오루(薰), 하치노미야(八の宮)처럼 불도에 깊은 뜻을 품었으면서 출가하지 못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온나산노미야(女三宮)나 우키후네(浮舟)처럼 종교적 구도심과는 관계없이 지냈으면서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인물도 있다. 그 중 우키후네의 경우는 불도의 가르침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가한 후 가오루로 대표되는 속세와 필사적으로 고독한 싸움을 해 나가려 했다. 이처럼 불교적 구도심에 의한 것이든, 속세를 피하는 피난으로서의 것이든 ‘출가’는 고대인들이 세속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그들의 인간적 욕구와 그 좌절의 극복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효한 단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 최고의 귀족의 출가는 뭐니뭐니해도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8)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3)</sup>. 미치나가는 1018년(寬仁2) 태정대신의 자리에 오른 후 약 2개월만에 사직, 이듬해인 1019년 출가하였다. 그는 태정대신의 자리를 사직한 후 딸 이시(威子, 999~1036)를 고이치조왕(後一條天皇, 1008~1036)의 중궁(中宮)으로 즉위시켰다. 쇼시(彰子, 988~1074, 이치조왕의 중궁), 겐시(妍子, 994~1027, 산조왕의 중궁)에 이어 3명의 딸을 중궁으로 즉위시킨 것은 미치나가의 나이 53세 때의 일이었다. 영화의 절정을 맞본 미치나가였지만, 이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고, 내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듬해(1019, 54세)에는 출가를 결행하였고, 동시에 호조

2) ハルオ・シラネ、『夢の浮橋 『源氏物語』の詩学』(中央公論社、1992), pp.283~284.

3) 末木文美土、『日本仏教史』(新潮文庫、1996), pp.128~129 참조.

지(法成寺) 조영에 착수, 이상할 정도로 집념을 보이며 조영을 서둘러 1022년(治安2) 완성하였다 한다. 결국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는 그의 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영화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1027년(万寿4) 자신이 조영한 호조지에서 임종을 맞았다. 이는 일본인들이 흔히 말법(末法)<sup>4)</sup>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던 1052년(永承7) 직전 경이었다. 당대 최고의 귀족 미치나가의 생애와 그 출가는 아마도 당시 많은 귀족들이 동경해 마지않던 바였을 것이다.

모노가타리의 많은 인물들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생애를 모방하듯 영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미치나가처럼 영화의 절정기에 출가를 단행하는데 있어서는 망설임이 많았다. 또, 이미 말법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여겨졌던 헤이안 시대 후기 모노가타리의 남자 주인공들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처럼 생을 완성하고 마감하는 형태로서의 출가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가오루(薫)가 그러했듯 애초에 출가의 뜻을 품고 있으면서도 번민하며 속세를 살아갔다. 『하마마쓰』의 추나곤(中納言)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말법의 시대를 산 허구의 인물인 추나곤의 삶을 규명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인간적 욕구를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 이후 헤이안 후기 모노가타리의 남녀 인물 구도 중 특징적인 조합은 히카루겐지(光源氏)와 온나산노미야(女三宮), 가오루(薫)와 우키후네(浮舟), 『사고로모 모노가타리(狭衣物語)』의 사고로모 다이쇼(狭衣大將)와 온나노미야(女二宮), 『하마마쓰』의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尼姬君)의 경우처럼 구도심을 품은 채 출가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이들 남성들과의 애정적 갈등 관계로 인해 출가를 단행한 여성들 사이의 갈등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는 출가한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남성들과,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여성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하마마쓰』의 추나곤은 산실된 수권(首卷) 부분에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뜻하지 않은 어머니의 재혼 등으로 애초부터 출가의 뜻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거나<sup>5)</sup>, 모노가타리 속에 끝내 그의 출가는 보이지 않는다. 본 모노가타

4) 석가 입멸 후 불법에서 유폐하는 시기 구분 중 마지막 시기, 像法 후 1만년, 석가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수행하는 자도 깨달음을 얻는 자도 없어지고, 교법만이 남는 시기. 일본에서는 1052년(永承7)에 말법(末法, 매포)에 들어갔다고 인식되었다. ‘쇼호(正法)’는 석가 입멸 후 500년에서 천년간, 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다 함. ‘조호(像法)’는 쇼호 후 약 500년에서 천년의 시기. 교법은 있으나 진실한 수행이 행하여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었다 함. (『仏教辞典』(宇井伯寿 監修、大東出版社、1938, コンサイス版第六刷、1993) )

5) 추나곤은 『하마마쓰』의 산실된 수권(首卷) 속에서 정이 각별했던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타고난 천성이 불도에 뜻이 깊어 출가를 굳게 결심하였으나,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호심으로 출가를 망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큰 충격을 받는데다 의붓 아버지인 다이쇼(大將)의 딸 오이키미(大君)에게 연정을 느끼면서도 그녀와 의붓 남매 관계인 것에 절망하고, 죽은

리는 추나곤이 당나라의 왕자로 환생하였다며 꿈에 나타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접하는 다양한 여성들과의 관계로 번민하는 모습<sup>6)</sup>을 묘사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의 여성 관계 중 첫 상대는 어머니의 재혼 상대인 사다이쇼(左大將)의 딸인 오이키미(大君)였다. 그녀는 추나곤 도당(渡唐) 후 추나곤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기야 출가를 단행하게 된다. 현존본 『하마마쓰』는 당에 도착한 추나곤이 오이키미가 이미 출가하여 아마히메키미(尼姬君)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당나라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추나곤 귀국 후 이들의 관계는 추나곤이 다른 여성들과 다양한 애정적 갈등 관계를 전개해 가는 가운데 남녀간의 애정과 갈등을 초월하여 같은 거처에서 동거하며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불교적 동반자의 모습으로 작품의 중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출가한 우키후네를 의심하는 가오루와 가오루의 전언을 거절하며 고뇌하는 우키후네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앞서 예로 든 다양한 모노가타리 속의 남녀 관계는 남녀 인물들의 불교적 구도심과 인간적 애정 사이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묘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가운데 불교적 동반자로서의 이들의 이상적인 관계는 매우 독특하고도 특징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계가 본 모노가타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오이키미, 즉 아마히메키미의 출가의 의미를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통해 다음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 3. 묘쇼곤의 인연(妙莊嚴の御契り)

당나라에서 귀국한 추나곤은 출가하여 아마히메키미가 된 오이키미를 보며 충격을 받지만, 후견인이 되어 한 집에 거주하면서 그녀의 불도 수행을 돕고 불교적 감화를 받으면서 불법 귀의를 꿈꾼다. 모노가타리는 사랑하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불도 수행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물질적 보호자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밤에도 침소만 나란히 하시고, 지나온 일 현재의 일들을 울고 웃으며 말씀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져 출가의 뜻이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浜松中納言物語』, 「散逸首卷の梗概」, pp.20~22)

- 6) 예를 들면 그에게 딸을 주고자 하는 다이니(大弐) 부부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 남들과 달리 비뚤어지게 살아 왔으나 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끝까지 청정하게는 살아갈 수 없는 법이므로”(권 2, p.149)

신다.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에도 같은 연꽃 잎 위에 함께 태어날 수 있기를”  
굳은 맹세를 나누시며 부처님의 기일이면 매달 불경과 불상 공양을 하신다.

夜もただ御座を並べて、昔今のことどもをかき尽くし、泣きても笑ひても聞え尽くし給ひ、  
「今、行く末も同じ蓮の上に」と、言ふかぎりなき御契りを尽くし給ひつつ、仏の御日に  
は、月ごとに経、供養せさせ給ふ。 (권 2, pp.180~181)

이 관계를 본 모노가타리의 용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묘쇼곤의 인연(妙莊嚴の御契り)’이 된다.

보현강이나 아미다 염불 등의 수행을 함께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묘쇼곤의 인연인 것이로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사이이시니 다이쇼로서도 마음이 놓이고 진정이 되셨다.

普賢講、阿弥陀の念仏など、かかるかたの御いとなみもろともにし給ひて、まことにこれこそ  
妙莊嚴の御契りなんめれと、かうてしもめでたくあらまほしきを、大將も胸あき、心地おちみ  
給ひぬ。 (권 2, p.181, 밑줄 인용자)

‘묘쇼곤의 인연’이란 불교에 배타적이었던 인물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불교적 감화를 받고 불법에 귀의하게 된다고 하는 불교적 표현이다. 이는 추나곤의 의붓 아버지이며 아마히메키미의 친부인 해당하는 다이쇼의 시선으로 『법화경』의 「묘쇼곤왕품(妙莊嚴品)」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이전에 이교도로 바라몬교를 숭상했던 묘쇼곤왕이 아내와 두 자식이 충언하여 법화경을 듣고 불법에 귀의했다는 데서 연유한 ‘묘쇼곤의 인연’<sup>7)</sup>이란 표현을 가지고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의 이상적(めでたくあらまほしき)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다수의 모노가타리 속에 등장하는, 출가를 했거나 혹은 출가를 희망하는 여성과 그녀를 연모하는 남성의 관계는 이미 언급했듯 갈등의 관계이다. 앞서 들었던 『사고로모모노가타리』의 사고로모 다이쇼와 온나니노미야의 관계는 대표적인 갈등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나니노미야와의 결혼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고로모 다이쇼는 역설적이게도 온나니노미야가 출가한 후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면서 새롭게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으며, 『사고로모모노가타리』의 결말 부분은 결착을 보이지 않는 이들의 갈등 관계로 맺어져 있다.

7) 『하마마쓰』 p.181, 주 10

그렇다면, 『하마마쓰』의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의 ‘묘쇼곤의 인연’은 『겐지모모가타리』의 히카루 겐지와 온나산노미야의 갈등 관계 이래 모노가타리사 속에서 하나의 모델로 남겨져 왔던 불법을 사이에 둔 남녀의 갈등 관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마히메키미의 심경을 설명하는 다음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 4. 아마히메키미의 출가의 상황

- 「속세 아닌 곳(あらぬところ)」을 찾는 「배꽃(山梨の花)」의 신세

『하마마쓰』의 아마히메키미 관련 내용은 현존본 권 1과 권 2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아마히메키미 출가 이전의 상황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은 권 1 부분이다. 권 2 이후가 되면, 귀국한 추나곤의 안정된 보살핌 속에서 아마히메키미는 수행 생활을 해 가고, 추나곤은 아마히메키미를 바라보며 불도에 귀의할 것을 다짐하는 ‘묘쇼곤의 인연’으로 정착되어 가기 때문이다.

본 모노가타리 속에는 작품 속의 사건이 이후의 모노가타리의 전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게 되는지 주인공에게 예시하는 기제가 곳곳에 숨어 있으나, 주인공은 이 예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보인다. 아마히메키미의 출가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당나라에 건너간 추나곤은 시름에 잠긴 아마히메키미가 울며 「누구로 인해 눈물의 바다 속에 몸을 담그고 승려가 되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たれにより涙の海に身を沈めしほるあまとなりぬとか知る)」

(권 1, pp. 52~53) 라고 와카를 읊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녀의 출가를 예시하는 것이었으나, 추나곤은 이를 예상치 못하며 「일본에 있는 그리운 나의 님이 오늘밤 나를 그리워 하는가봐 내 꿈에 보인다네(그대日本の御津の浜松こよひこそわれを恋ふらし夢に見えつれ)」 (권 1, p. 53) 하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와카를 읊는 것으로 추측을 그치고 만다.

한편, 아마히메키미는 출가 후 그녀를 염려하는 추나곤의 어머니, 즉 의붓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추나곤이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거처를 옮기고자 하였다. 추나곤의 어머니는 남편이 장차 왕비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던 의붓 딸이 아들과의 관계로 인해 돌연 출가를 했다는데 책임을 느끼고, 그녀와 그 아기를 거두어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히메키미는 출가한 승려의 모습으로 추나곤 모친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부끄러워하였고, 거처를 옮기고자 탄원하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녀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곤혹스러워 하는 그녀의 상황과 심경을 엿볼 수 있

는 부분이다.

아마히메키미는 이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듯 하였다. 수년간 합당하지 못한 거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님의 뜻을 굳이 거역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듯 하였는데, ‘그분의 귀국 소식을 들으며 이렇게 있는 것이 구차하기도 하나’ 하며 ‘남몰래 한가로운 거처’ 로 옮기고 싶어하였다.

尼姫君、これを聞き給ふにも、胸うちつぶれて、年ごろもつきなき住みかと思ひつれども、上の御もてなしを、あながちにそむき隔たらむも、思ひぐまなくさま悪しき心地しつるに、おはすと聞く聞く、かくてあらむが便なくもあるべきかな」「かすかにのどやかなる住まひ」に移りたいと求める。  
(권2, p.129)

위 인용 부분은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보호와 관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마히메키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가 후에도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재혼한 양가 부모의 관계는 추나곤과 그녀의 관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모노가타리는 아마히메키미의 입장과 심증을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 서술 속에는 상징적인 어구가 들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험한 세상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 세상 등진 나인데 그 보람도 없이 거처조차 옮기지 못하고 있다니. 어머님께서 그러셔도 아버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이렇게까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①속세 아닌 곳도 없기에 도망쳐 나가 숨어 버리는 것도 꽤 씁한 일이었고, 거역하여 부모님께서 노여워하실 것도 살아 있는 동안은 괴로울 것이니 ②‘배 꽃’ 신세처럼 처량하다고 시름에 젖는데...

憂き世を見ず聞かず思ひ離れなむわが身ながらも、さばかり思ひ離れしかひなう、ところも替へずかくてあらむよ。なほ上こそさのたまはすとも、殿は、げにさてあらじ、とおぼされよかしと、涙こぼれて心憂けれど、かばかりつねに言ひあはめ給ふに、①あらぬころはなきものから、出で離れ逃げ隠れなむも、いとどけしからず、うとまれ果てられたてまつらむも、かぎりあらむ命のほどは、わりなうおぼさるれば、「②山梨の花」の心憂さをおぼし入るに、  
(권 2, p.123, 밑줄 인용자)

먼저 그녀는 새어머니의 강경한 보호와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 속에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강행하며

옮길만한 거처도 없었다. 위 인용 부분에서의 그녀는 이러한 처지를 본인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처지는 그녀의 심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함축적인 표현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를 선행 용례와 자세히 비교해 봄으로써 그 함축의 의미를 좀더 추출해 보자. 밑줄 부분의 ①‘あらぬところ’와 ②‘山梨の花’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①의 ‘あらぬところ’는 『겐지모노가타리』 「요코부에(横笛)」 권의 온나산노미야와 「테나라이(手習)」 권이나 「아즈마야(東屋)」 권의 우키후네의 와카에서 선행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두 여성이 모두 출가를 결행한 인물들임을 고려할 때 작자가 선행 모노가타리 속에서 아마히메키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그 처지를 비관하면서 표현한 용어를 의식적으로 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먼저 ‘あらぬところ’에 관한 온나산노미야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속세에 없는 그곳이 그리워서 세상 등지려 속세 떠난 산길로 마음이 향하  
누나

うき世にはあらぬところのゆかしくてそむく山路に思ひこそ入れ

(요코부에, p. 336, 밑줄 인용자) 8)

위 와카를 읊는 온나산노미야 역시 아마히메키미가 출가 후에도 추나곤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히카루 겐지의 보호 아래 로쿠조인을 거처로 할 수밖에 없었다. 현세 아닌 곳을 찾아 세상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 남편인 히카루 겐지와 추나곤의 보호를 받으며 속세를 거처로 할 수 밖에 없는 두 여성의 비슷한 처지가 ‘あらぬとこ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키후네와 관련된 ‘あらぬところ’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키후네는 우지(宇治)에 있는 나카노키미(中の君)의 거처에서 니오노미야(匂宮)로부터 접근당한 후, 그를 피해 산조(三條)의 작은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때 어머니인 추조(中将)가 그녀를 염려하며 보낸 와카에 대하여 우키후네는 ‘あらぬところ’를 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가를 보내고 있다.

그저 한없이 기쁘지 않겠어요 바로 이곳이 속세 아닌 곳이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ひたぶるにうれしからまし世の中にあらぬところと思はましかば

(아즈마야, p.77)

8) 『겐지모노가타리』의 인용은 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校注·訳『源氏物語』(6) (日本古典文学全集17, 小学館, 1970, 第12刷, 1980)에 의한다.



쫓겨서 깊은 산 속 거처에 숨어 지내며 그곳이 바로 속세가 아닌, 시름없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 한없이 기쁠 것이라고 하는 이 와카는 세상을 등지고 싶어하는 우키후네의 심경을 벌써부터 추측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키후네와 관련된 ‘테나라이’권의 용례<sup>9)</sup>에서 ‘あらぬところ’는 구체적으로 오노(小野)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자살을 시도했던 우키후네는 이때 요카와노소즈(横川僧都)의 구원을 받고 오노에 있는 여승들의 거처로 이동해 있었다. 그리하여 반생을 되돌아 보며 구차한 자신의 몸을 감추는 데 적당한 곳은 속세가 아닌 곳, 이곳 오노야말로 최적의 곳이라고 독백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며 절망하고 있었다. 이를 「속세 아닌 곳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구나 세월 지난 모습을 숨길 수만 있다면 (世の中にあらぬ所もえてしかな年ふ)にたるかたちかくさむ」(拾遺集·雑上·詠人しらず)을 전거로 하는, 앞서 들었던 「아즈마야(東屋)」권의 우키후네의 와카와 함께 고찰해 보면 모노가타리 속의 우키후네의 상황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아마히메키미가 ‘あらぬところ’를 원하는 절실한 상황과 마음은 우키후네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것을 표현한 와카를 인용함으로써 더욱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의 ‘山梨の花’의 함축하는 바와 아마히메키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때 ‘山梨の花’의 인용은 「이 세상이 괴롭다고 말해도 어느 곳인가 몸을 숨길 수 있으리 배꽃같은 신세여(世の中を憂しと言ひてもいづこにか身をば隠さむ山梨の花)」(古今和歌六帖·六·木·詠み人知らず)에 의하는데, 『사고로모노가타리』와 『겐지모노가타리』에 각각 한 예씩 용례가 있다.

먼저, 『사고로모노가타리』의 경우를 보면, ‘山梨の花’는 비련의 여인 아스카이노 온나키미(飛鳥井女君)와 관련 깊다. 아스카이노 온나키미의 상황은 이러했다. 그녀는 유모의 계략으로 파계승에게 납치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사고로모 다이쇼의 도움을 받았다. 사고로모는 신분을 숨겼으나, 이 만남으로 그녀는 사고로모의 사랑을 받아 임신하게 되었고, 신분을 알리지 않는 사고로모의 존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던 그녀의 유모는 그녀를 쓰쿠시(筑紫)로 내려가는 사고로모의 가신에게 팔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자신이 팔려 가는 대상이 다름아닌 사고로모의 가신임을 알게 된 아스카이노 온나키미는 쓰쿠시로 내려가는 물길에 몸을 던진다. 아스카이노 온나키미가 ‘山梨の花’의 표현을 빌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쓰쿠시로 내려 가기 직전 자신이 어디에도 몸 둘 곳 없는 처지임을 새삼 되돌아 보는 상황에서이다. 그녀로서는 사고로모

9) 아무리 생각해도 속세가 아닌 곳은 이곳인가 생각되었다. (何ごとにつけても、世の中にあらぬところはこれにやあらんとぞ、かつは思ひなされける) (테나라이, p.292)

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못한 채 유모의 결정  
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고로모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어느 한 곳 의지할 곳 없는, 절실하게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의탁하고 싶은 그녀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山梨の花’는 와카로서  
가 아닌 ‘山梨の花’라는 어휘만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다.

이제는 궁에 입궐하여 높은 분을 모시면서 일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배  
꽃처럼 어디에 몸을 숨길 것인가 생각하니 차라리 무서운 출산을 하는 김에  
죽어 버렸으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의지할 곳 없는 허전함에 베개가 다 젖어 버렸  
다.

いづくに、今は、まいて、さやうの筋は、思ひかくべくもあらずかしなど、山なしを思ひ続ける  
に、恐ろしきことのあるなるついでに、亡せなばや、世にあらずなりなんのみこそ、人を恨み  
果てで止まめなど、はるばるの果て果ては、うしろめたく、心細く思ひ続けるに、枕も浮きぬ  
ばかりなるに。 (『사고로모모노가타리』 권 1, p.128, 밑줄 인용자) 10)

우키후네의 ‘あらぬところ’를 인용함으로써 더욱 호소력을 지니게 된 아마히메키  
미의 심경은 ‘山梨の花’의 함축을 통해 피할 곳 없이 죽음으로 치달은 『사고로  
모모노가타리』의 아스카이노 온나키미의 절박한 상황을 인용함으로써 아마히  
메키미의 독백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었던 절박한 심경을 독자에게 전해 주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겐지모모노가타리』의 ‘山梨の花’는 우지(宇治)의 오이키미의 급박한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이 표현이 아마히메키미의 곤혹스러운  
출가의 상황과 함께 출가로 인해 달라진 그녀의 외면적인 모습까지도 함축함  
으로써 추나곤이 연모하는 다른 여성들과의 외모적인 차별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우지의 오이키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오루와 그녀를 맺어 주기 위  
해 합심이 된 가운데 홀로 「이곳 거처도 소용이 없구나 배 꽃처럼 피할 곳이  
없으니 피할 곳이 없으니 (かかる御住まひのかひなき、山なしの花ぞのがれむ方なか  
りける)」 (아게마키, p.237) 라며 도망칠 곳 없는 신세를 한탄한다. 이때의 ‘山梨  
の花’는 피할 길 없는, 시름 많은 속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겐지모모노  
가타리』 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용례에 속하는 이 ‘山梨の花’는

10) 『사고로모모노가타리』의 인용은 小町屋照彦・後藤祥子校注・訳『狭衣物語①』(新編日本古典文  
学全集29、小学館、1999)에 의한다.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어느 여성과도 비교될 수 없는 처지의 우지의 오이키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은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山梨の花’는 불도를 지향하는 오이키미가 가오루의 애정 공세를 받으며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용어이고, 이것이 『하마마쓰』 속에서 출가한 아마히메키미의 심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도를 지향하면서 출가하지 못한 채 속세의 관계에 얽매어 있는 우지의 오이키미와,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세의 관계로 구속받고 있는 아마히메키미의 동일한 곤혹스러움이 ‘山梨の花’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마치야 데루히코(小町谷照彦)의 상세한 분석에 의하면, 『겐지모노가타리』의 「아게마키(総角)」권의 「山梨の花」는 「예전부터 세상과 동떨어진 마음으로(昔より思ひ離れそめたる心にて)」(아게마키, p.238) 염세출리(厭世出離)를 지향하며 살고자 한 우지의 오이키미가 출가를 희구하면서도 출가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up>11)</sup>. 즉, 가오루가 오이키미에게 애정적 관계를 공략해 오고, 이를 후원하는 노보(女房)들이 가오루와의 결합을 재촉해대는 가운데 ‘피할 곳 없어진(のがれむ方なかりける)’ 오이키미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마치야에 의하면 ‘山梨の花’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꽃나무는(木の花は)」 단에서도 ‘사랑스러움이 뒤떨어지는(愛敬おくれたる)」 꽃으로 분류되며, 가어(歌語)로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는 꽃이다. 이러한 「山梨の花」를 우지의 오이키미를 형상화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은 무라사키시키키부가 「山梨の花」의 청초함이나 가련함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지의 산 속에 숨어 살며 남녀간의 연애 등을 기피하고 불도를 추구하는 오이키미를 형상화하는 가장 적합한 꽃으로 「山梨の花」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우지의 오이키미와 『하마마쓰』의 아마히메키미는 각각의 모노가타리 속에서 불교 및 출가와 관련없이 생각할 수 없는 여성들이며, 이들 여성들을 형상화하기 위해 여성적 아름다움과는 동떨어진 비유로 「山梨の花」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추나곤의 시선에 비추어진 아마히메키미는 「승려들이 입는 짙은 회색과 차갈색 옷을 소박하게 겹쳐 입으신 모습(鈍色、香染など、あまた重ねてうちやつれ給へる)」(권 2, p.171)이며, 이는 여성적이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숨길 수 없는 승려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당나라에 건너갔던 추나곤이 모노가타리 전권을 통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당나라의 황후가 「그 모습이 비할 데 없고 아름다움을 발하는 눈부신 형상은 먹구름 속에서 보름달의 빛을 발견한 듯한(かたち、ありさまの

11) 小町屋照彦 『源氏物語の歌ことば表現』(東京大学出版会, 1984, 第2刷, 1993), pp. 277~279.

似るものなく、にほひを散らしめてたきさま、むら雲の中より、望月のさし出でたる光を見つけたらむやうなる」(권 1, p.99) 형상으로 화려하게 형용되고 있음을 볼 때, 두 여성이 대단히 상징적인 대조적 인물로서 추나곤과 관계되는 인물임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 5. ‘묘쇼곤의 인연’의 한계

이상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하마마쓰』의 작자는 아마히메키미의 상황을 선행 모노가타리들에 등장하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의 입장을 함축하는 어휘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녀의 절박한 심경에 호소력을 더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우키후네나 온나산노미야, 아스카이노온나키미, 우지의 오이키미 등 『겐지모노가타리』와 『사고로모노가타리』의 대표적인 비련의 여인인 이들은 한결 같이 남성과의 곤혹스러운 관계로 인해 불법에 회귀하고자 하였거나, 그런 그녀들에게 집착하는 남성들로 인해 평안한 불도의 길을 걷지 못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지와 비견되는 아마히메키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차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마히메키미의 출가 및 수행 생활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온나산노미야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지만, 아마히메키미가 추나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안정적 수행 생활을 하였다는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온나산노미야의 평온한 수행 생활은 히카루 겐지에게 이미 승려가 된 예전의 아내에 대한 집착의 근원이 되기도 했으나, 온나산노미야는 겐지의 집착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다음의 증답가는 이를 극명하게 설명한다.

같은 연꽃잎 함께 태어나자고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진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슬프군요

はちす葉をおなじ台と契りおきて露のわかるるけふぞ悲しき (스즈무시(鈴虫), p. 364)

분별도 없이 연꽃잎 위 거처를 맹세하여도 나 당신의 거처에 머물지 않으리니

へだてなくはちすの宿を契りても君がこころやすまじとすらむ

(스즈무시(鈴虫), 위와 같은 곳)

또한, 『사고로모노가타리』의 사고로모 다이쇼와 온나니노미야의 경우도

히카루 겐지와 온나산노미야의 경우처럼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사고로모노가타리』에서 온나노미야의 내면을 결정적으로 알려 주는 기제는 그녀가 홀로 읊은 독영가(独泳歌)였다<sup>12)</sup>. 온나노미야의 와카는 모두 증답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독영가 형식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는 사고로모 다이쇼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온나노미야의 내면을 단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마히메키미와 추나곤의 와카는 예외없이 독영가가 아닌 증답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음의 증답가에서도 그러하다.

그대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어지러워져 연꽃잎 위 약조로 위로 받는다해도

見るたびにまづも乱るる心かな蓮の上になぐさむれども (권 3, p.244)

괴로웠지만 머물고도 싶었네 연꽃잎 위의 이슬을 눈물로 머금지 았았다면

うきながらとまる心もありなまし蓮のうへの露もかけずは (권3, 위와 같은 곳)

아마히메키미의 위의 답가는 현실에서는 이미 출가한 자신의 처지와 달리 비출가의 상황을 상정하는 반실가상(反実仮想)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추나곤이 당나라로 건너가지 았았더라면 괴롭기는 하더라도 속세에 남고 싶었다고 하며 비출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출가하여 아마히메키미가 된 여성이 마음 그대로 애정을 담은 와카를 남성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답가는 모노가타리의 종말 부분에서 갈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있던 사고로모와 온나노미야의 관계에서는 결코 오고 갈 수 없었던 와카들이다.

이처럼 아마히메키미는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여성들이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불도를 수행하면서 얻는 다른 경우의 여성이다. 이런 그녀의 상황이 「묘쇼곤의 인연」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녀와 추나곤의 관계를 모노가타리 속 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여자도 얼마간은 겹연쩍고 불편한 거처가 싫게 생각되었지만,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보살핌 하에선 이런 공덕을 생각지도 못할 터인데. 불도정진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았으며 온 마음으로 내세를 생각하며 정진하니 참으로 기쁜 벗을 만난 듯하여 이제와선 굳이 거리를 두지 았고 편

12) 줄고, 「出家した女」(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 2003), p.14, 사고로모 다이쇼가 온나노미야에게 보낸 12수의 와카에 대하여 온나노미야는 단 한 수의 답가도 보내지 았으며, 그녀가 읊은 7수의 와카는 오로지 독영가와 습작가로 되어 있다.

안히 지내신다.

女も、しばしこそまばゆく、かたはらいたき住まひと、いとはしくおぼされしか、いみじうとも、わが心ひとつに親と申すとも、その御かげにはいかでか、かう思ふままなる功德のことなど思ひ寄らざらましを。おこなひを心にしめて、内々は心を乱るべうもあらず、ひとつ御心に、後の世のことをおぼしつとめたるは、あはれにうれしき友に逢ひたることとおぼし知られにたれば、今はあながちに隔てむすぼほれ聞え給はず、うち解け見馴れ聞こえ給ふ。

(권2, p.183)

추나곤의 심경 또한 다음과 같이 아마히메키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모노가타리는 출가를 지향하며 살던 그가 아마히메키미와의 수행 생활을 통해 얻게 된 편안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생각했던가. 그녀와 내가 세상의 혼한 남녀 관계였다면 내 태도가 어설피다고 원망드는 일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수행도 게으름부리지 않고 내세에 대한 걱정도 잊을 수 있지 않은가. 나나 그녀나 원망이 없을 리 없건만. 이런 관계에서야말로 정이 깊어지는 법이로구나.

さはれ、なほわれは例の人にて世にあらむとや思ひし。世のつねのなからひならむには、わが世づかぬありさまおろかなりなど、おのづから恨みらるる折もあらましに、おこなひもいとけ怠なくせずなどして、後の世の思ひ、まぎるることにてぞありなまし。これは、いかなりとも、目の前の恨み、われも人もあるべくもあらず。かかるにしもぞ、あはれまさりぬべきわざなるべき。

(권 2, pp. 183~184)

그러나, 이와 같은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의 이상적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그것 자체로 이미 갈등적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모노가타리의 중심적 전개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결함을 지니게 된다. 더불어 이 관계가 다음과 같이 「묘쇼곤의 인연」이 내포하는 새로운 갈등의 관계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히메키미의 경우는 추나곤의 귀국 후 「속세 아닌 곳」을 찾으며 「배꽃」의 신세를 한탄하던 상황이 해결된 후에도 정작 그 상대인 추나곤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추나곤의 보살핌 속에서 시름없는 곳이 없다며 한탄하던 아마히메키미로서는 「뜻대로 불도정진에 힘쓰며 공덕(思ふままなる功德のこと)」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녀가 실제 처한 상황은 「山梨の花」로 상징되듯 「승려들이 입는 짙은 회색과 차갈색 옷을 겹쳐 입으신 초라한(鈍色、香染など、あまた重ねてうちやつれ給へる)」(권 2, p.171) 승려의 신세였다. 모노가타리 전 권을 통해 추나곤의 중점적 애정의 대상이 되는 당나라의 황후는 추나곤의 시각으로 「먹구름 속에서 보름달의 빛을 발견한 듯한(むら雲の中より、望月のさし出でたる光を見つけたらむやうなる)」(권 1, p.99)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묘사되고 있으며, 아마히메키미는 그의 당 황후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킬 수 없는 존재였다. 추나곤의 심경을 설명하는 모노가타리의 다음과 같은 긴 서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마히메키미에게는 잠못 이루는 긴 밤 현재와 내세의 일을 남김없이 말씀하셨지만, 가요켄의 황후의 일만은 마음 속 깊이 남겨 두셨다. 국화꽃을 보며 함께 지냈던 그 저녁 무렵의 모습이며 칠현금 소리는 전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꺼내지 못하셨다. 얼마간은 어머니와 아기, 아마히메키미를 참으로 오랜만에 보며 위로도 받고, 황후를 잊을 수는 없었어도 경황 없이 지냈건만, 이제 아마히메키미에 대한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진정되어 가면서 다시는 당나라에 돌아가서 황후를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되자 그리움이 허무한 하늘에 가득 차버리는 듯 한데...

尼姫君には、この世のこともかの世のことも、残りなく、長き寢覚に聞こえ尽くい給ふ中に、河陽県の後のことばかりぞ、心のうちも深く残し給ひて、菊見給ひし夕べの御かたち、琴の音ばかりなどは、いみじう聞きどころありて、語り給ふべき物語りなれど、まづ先に立つ涙につつまれて、え言ひだに出で給はざりけり。しばしは上や姫君、女君などの、あはれにめづらう見たてまつり給ふに、おのづからまぎれ、もの騒がしう、心あわたたしきやうなるに、忘らるることはなきながら、まぎれ過ごし給へるを、よろづ、今はと心苦しき思ひなく、ありつきのどまりゆくまに、または帰り見るまじきぞかし、と思ひ出でらるる恋しさの、むなしき空に満ちぬる心地のするまに、  
(권2, pp.185~186)

위 인용 부분은 아마히메키미의 심경을 「현재와 내세 모두 뜻한대로 이루어진 듯한 마음(この世もかの世も、思ふさまなる心地し給ひて)(권 2, p.184)」으로 묘사한 후 곧 바로 추나곤의 심경을 위와 같이 묘사하고 있어 그 대조가 더욱 눈에 뜨인다. 아마히메키미와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면서 동시에 황후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르는 위와 같은 추나곤의 심경은 ‘묘쇼곤의 인연’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노가타리적 갈등이 새로이 전개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교적 이상 관계인 ‘묘쇼곤의 인연’은 모노가타리의 중심축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 6. 결 론

### - 『하마마쓰』의 모노가타리성

불교의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속세에 대한 집착을 불리 일으키는 죄 많은 존재이다. 헤이안 시대의 많은 모노가타리는 당시의 불교적인 가치관을 모노가타리 속에 수용하면서 구도심을 품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 관계를 거듭 제시해 왔다. 이러한 관계들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본 모노가타리의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의 경우는 남녀간의 애정적 갈등이 종교인 불교와의 상충 관계를 뛰어넘는 대단히 이채로운 관계이다. 아마히메키미의 아버지 사다이쇼는 이들의 관계를 두고 ‘묘쇼곤의 인연’이라 절찬해 마지 않았다. 이들의 관계는 가족의 인연과 유혹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과 왕생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면 모노가타리적 갈등의 상황을 해소한 듯한 이들의 관계가 본 모노가타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아마히메키미는 온나산노미야나 우키후네와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녀들이 내면에 품고 있던 갈등의 요소를 제거한 인물로서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이키미의 내면을 상징하는 두 개의 함축적인 어휘로 확인되었듯이 갈등의 생성과 그것을 제거하는 형식이 추나곤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양가 부모의 관계라고 하는 모노가타리의 내부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 모노가타리의 추나곤과 아마히메키미의 관계는 애정과 불교적 구도심이 갈등을 뛰어 넘어 새로운 화합의 형태를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추나곤의 새로운 갈등 관계와 연계되면서 새로운 모노가타리성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히메키미와의 갈등이 해소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추나곤은 당나라 황후에 대한 연정과 그리움으로 번민하게 되는 새로운 갈등적 모노가타리의 전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본 모노가타리가 이들의 관계를 통해 불법을 사이에 둔 남녀간의 이상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여타 모노가타리들이 다루었던 불교적 구도심과 남녀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말법의 시대와 세상을 살아간 모노가타리 속 한 여성의 출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사상과 인간적 욕구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보았다.



## 【参考文献】

- 秋本守英·神尾暢子·塚原鉄雄共編『狭衣物語総索引』（笠間書院、1975）
- 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校注·訳『源氏物語』（6）（日本古典文学全集17，小学館、1970，第12刷、1980）
- 池田利夫編『浜松中納言物語総索引』（武蔵野書院、1964）
- 今西裕一郎·鈴木日出男·藤井貞和·柳井滋編『源氏物語索引』（新日本古典文学大系別巻、岩波書店、1999，第2刷、2000）
- 宇井伯寿 監修『仏教辞典』（大東出版社、1938，コンサイス版第六刷、1993）
- 小町屋照彦·後藤祥子校注·訳『狭衣物語①～②』（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29～30、小学館、1999～2001）
- 小町屋照彦『源氏物語の歌ことば表現』（東京大学出版会、1986，第2刷、1993）、pp. 277~279
- 末木文美士、『日本仏教史』（新潮文庫、1996），pp.128~129
- ハルオ·シラネ、『夢の浮橋『源氏物語』の詩学』（中横行論社、1992），pp.283~284
- 松尾聡校注『浜松中納言物語』（日本古典文学大系77，『篁物語 平中物語 浜松中納言物語』、岩波982）
- 柳井滋「妙莊嚴の御契り—浜松と源氏—」（『むらさき』，1書店、1994，第5刷、1982년7월호）、pp.63~64
- 줄고, 「出家した女」（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2003），p.14

## 要 旨

本論文は、平安時代後期の『浜松中納言物語』における、中納言と尼姫君の関係について尼姫君の出家を中心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

平安時代の物語における男女関係の特徴的な組合わせの一つは、道心を持っていながら出家できずにいる男性と、道心と掛け離れていたが、男性との不和な関係のため出家した女性の関係であると言えよう。これらの関係は、しばしば男性側は出家した女性に執着し、女性側はその男性のため苦しむという葛藤の関係になりがちであった。しかし、『浜松中納言物語』の中納言と尼姫君の関係は、「妙莊嚴の御契り」と呼ばれるほどめずらしく理想的なものになっている。

そこで、こうした関係の意味を探るために尼姫君の出家前の状況から出家に至るまでの過程を考察したところ、彼女の心境を語る二つの特徴的な心内語の働きに注目することができた。彼女の心内語である「あらぬところ」と「山梨の花」は、他の物語における類似した女性の境遇を引くものであったのである。「あらぬところ」は、「横笛」の女三の宮と「手習」や「東屋」の浮舟の境遇を、「山梨の花」は『狭衣物語』の飛鳥井女君や『源氏物語』の宇治の大君の境遇をそれぞれ引くものであった。しかし、これらの女性たちは、相手の男性側と対立の関係を見せつづけることに対して、尼姫君の場合は、出家後も「妙莊嚴の御契り」と呼ばれるほど中納言と仏教的な善知識の関係をもち続けていく。

ところが、尼姫君と中納言の理想的な関係は、葛藤そのものが解消しているため、逆説的にも、物語の中心的な展開から外れていくようになる。同時に、尼姫君の方は、中納言の世話を受けつつ修行に励む理想的な勤行生活を行うことに対して、中納言の方は、彼女との葛藤が解消するや否や、恋する唐後の華麗なる美しさを思い浮かべつつ恋しさに苦しむのであった。

このように、『浜松中納言物語』における中納言と尼姫君の「妙莊嚴の御契り」の関係は、男女間の愛情と仏教的な道心との間の葛藤の解消した、新しい男女関係のモデルを提示しつつ、一方では、中納言の新しい女性関係による葛藤を暗示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こに、単に仏教説話としてのストーリー性を乗り越えた『浜松中納言物語』の物語性が引き出されているといえよう。

キーワード：出家、妙莊嚴の御契り、あらぬところ、山梨の花、仏教説話、物語性

|                     |
|---------------------|
| 투 고 : 2007. 5. 31   |
| 1차 심사 : 2007. 6. 9  |
| 2차 심사 : 2007. 6. 30 |

住 所 : (135-895)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서울디지털대학교 일본학부  
電 話 : 02-2128-3076, 016-872-7267  
e-mail : shin@sdu.ac.kr, jaeinsh@hanmail.net